

Evaluation of Collections for Teachers of Korean at Five
Representative High School Libraries in the City of Seoul

學校圖書館 藏書中 國語科 教師用 資料의 評價研究

韓 允 玉

弘益女高司書教師

編輯者註：本稿는 1975年度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 專攻 碩士學位論文의 要約이다.

1.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학교교육의 기본활동은 교사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전달경로의 한 쪽 끝에 자리잡은 교사가 다른 쪽 끝의 학생에게 구어나 문헌을 매체로 하여 여러가지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행동이다. 이때 학생 안으로 들어와 쌓이는 내용은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따라 차이가 생기며 이것은 물론 교육목표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송신자 위치에서는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여러가지이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자원으로서의 역할”¹⁾이다. “지식자원으로서의 역할”은 교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수입하고 이미 이해된 지식이라도 계속 경신할 것을 요구한다.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발견과 발명으로 지식 자체가 늘어나고 수정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연구활동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책임이요 행동이지만 현대지식의 복잡한 전달구조와 양적, 질적 급증추세때문에 옛날처럼 시종 혼자 힘으로 이행하는 어려운 활동이다. 여기에 교사 연구활동 지원기관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학교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학생 및 교원의 학습, 교양, 조사연구 및 「테크레이션」 등 그 이용에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시설”²⁾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정의는 흔히 생각하듯이 학교도서관이 학생진흥기관이 아님을 말해준다. 학생들의 교과학습을 도울뿐 아니라 “교원의……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기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분명한 사실이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지않다. 한 두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첫째,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기준령³⁾에는 학급당 150권이러

는 학생용 장서규모만 제시되었을 뿐 교사들을 위한 자료는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 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마련된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안⁴⁾에도 학생수에 대한 장서기준이 제시되었을 뿐 교사용 전문자료의 비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주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모르나 본인이 수년간 학교도서관 실무자로서 일하며 얻은 인상도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 대한 봉사에만 치중하고 교사들에 대한 그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학생에 대한 봉사 못지않게 교사에 대한 봉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학교경영자들과 사서교사들의 그릇된 도서관 운영방식으로 전자에 비하여 후자는 소홀히 되고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학교도서관 장서중 교사용자료의 평가, 교사들의 문헌요구, 도서관을 통한 그 충족률 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교사에 대한 학교도서관 봉사의 현 위치를 바로 고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다단계 연구의 첫과정으로서 학교도서관장서중 교사용 자료현황이 어떤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즉 학교도서관에 문헌학적, 교양학적, 학습참고서적 등 학생용 자료 뿐 아니라 교사들의 지적자원화에 필요한 학습지도관계문헌, 주제분야의 학술전문지, 학술참고문헌들이 골고루 그리고 충분하게 갖추어져 도

1) F. Redle and W. Wattenberg, *Mental Hygiene in Teaching*(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1951), pp. 237-42 [李榮德, 敎育의 過程(서울: 배영사, 1969), pp. 90-92에서 재인용]

2) 도서관법 제3조제3항.

3)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5조제6항(대통령령 제6854호: 1973.9.14 개정)

4) 한국도서관 협회제정,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안)

서관 본연의 기능이 바람직하게 수행될 수 있는 날을 멀리 대망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관문의 제일단계 과제를 수행코자 시도한 것이 이 연구에 있어서의 주된 동기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교사용자료를 평가하므로써 교사들에 대한 학교도서관의 봉사수준을 평가하고,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밝혀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드·솔라·프라이스」의 중요문헌분포 이론에 따라 국어교과사용 자료평가용 표준서목을 작성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표준서목이 작성된후 그것으로써 다섯개 표본도서관의 장서를 대조 평가하여 강약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것을 요약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국어과 교사용자료 평가에 쓰일 표준서목(줄여서 이하 표준서목이라한다)을 작성하는 일.

(2) 표준서목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내의 5개 표본도서관 장서를 대조 평가하여 강약부분을 밝히는 일.

(3) 국어과교사용 자료평가의 사례를 통하여 교사들에 대한 시내 고등학교도서관의 전반적 봉사수준을 추정하고, 거기에 게재된 문제를 밝혀 정의함으로써 후일의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일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선 표준서목을 작성하고 다음에 장서를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준서목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

(1) 고등학교 현직 국어과 교사들에게 개인서신을 보내어 그들이 지적자원화로 위한 노력에 진요하다고 믿는 ㉠학술잡지류, ㉡학습지도상 참고도서 및 전공분야 저서류, ㉢일반 참고도서류(사전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된 자료들을 위의 세종류별로 응답빈도순위 서목을 작성하고 적정빈도수 선에서 切捨하여, ㉠류는 그대로 표준서목에 포함시키고, ㉡과 ㉢류는 (3)의 인용문헌조사를 위한 자료군으로 삼았다.

(3) 위의 (2)㉡과 ㉢류 자료군에 포함된 자료 하나하나를 조사하여 각주나 인용문헌서지 속에 나타난 모든 원용문헌들을 빼어 인용빈도 순위서목을 작성하고 적정빈도수선에서 절사하여 표준서목에 포함시켰다.

(4) 선정된 표준서목들은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도서관 저자목록과 대조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5) 완성된 표준서목을 해당도서관 사서교사에게 보내어 장서와 대조 점검케 하고, 점검결과는 가설에 대하여 의미있는 결론이 나오도록 처리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5개 표본도서관은 형편상 전국적 분포로 보아 비교적 충실한 고등학교 도서관 봉사지역이라 믿어지는 서울시내로 국한하였으므로 연구결과가 전국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결여할 것이다.

(2) 장서평가의 기준이 된 표준서목 작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공인된 교사용자료의 수량적 표준이 없으므로 수록자료의 수를 결정할 때 미국표준⁵⁾을 참작하여 가설적 절사선을 긋는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어느정도의 객관성이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3) 표준서목작성에서 채택된 문헌인용 빈도조사를 통한 국어 국문학분야 기본자료 선정의 방법은 「오어」가 의학분야 기본자료 선정을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따른 것인데 최신정보 전달이 강조되는 의학분야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는 인문과학분야인 국어국문학분야에서 이 방법을 따르자면 다소의 수정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한된 여건으로 도서관학분야 기본자료 선정연구에서의 「페너」처럼 본 연구에서도 거의 기계적으로 그 방법이 원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표준서목 작성방법의 타당성평가도 이후의 한 과제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서평가법

일반적으로 도서관기능을 평가하려고 할 때 먼저 장서평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도서관에 있거나 장서가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 도서관의 장서를 평가하려면 평가자, 평가기준, 장서의 유형등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선 다음의 세가지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⁶⁾

(1) 어떤 종류의 자료들이 그 장서에 포함되었으며 그것들이 같은 주제의 자료로서 아직 수집되지 아니한 자료들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아야 한다.

(2) 장서속의 자료가치는 이용대상 집단의 요구에 적합한지 여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도서관의 이용대상 지역사회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3) 도서관이 그 지역사회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5)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0), pp. 24-25.

6) Mary Duncan Carter and Wallace John Bo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3rd ed. (Metuchen, N. J.: Scarecrow Press, 1969), pp. 133-34.

도서관 장서평가는 더 효율적 도서관 봉사를 위한 계획수립과 목표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를 얻기위한 것이어야 한다. 「허어쉬」는 장서평가법을 대별하여 다음 네가지 방법을 제시한다.⁷⁾

(1) 도서관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를 토대로 하여 조사대상 도서관의 목적과 방침을 평가기준으로 조사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상적인 평가가 되기 쉽고 독단에 사로잡히기 쉬운 단점이 있다.

(2) 평가용 표준서목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준서목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3) 이용통계자료들을 처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서관의 목적과 자료이용의 실제적 효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4) 유사한 다른 도서관의 「테이타」와 비교, 평가하는 수량적 평가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코울」⁸⁾ 「커스터」⁹⁾ 등의 장서평가법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 위에서 논의된 방법과 원칙에 있어 대동소이한 것이다.

2. 선행연구 개관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장서평가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사례는 매우 드물며 다만 교사들의 독서흥미 조사가 몇편 발표되었을 뿐이다. 이기택¹⁰⁾은 56%의 교사들이 자기 전공에 필요한 서적을 위주로 독서를 한다는 것을 밝힌 일이 있고, 김기완¹¹⁾은 경상북도내 학교도서관의 “장서구비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종합한 일이 있다. 이 조사에서 학교도서관 장서내용이 ‘부족하다’고 한 반응분포가 71%, ‘보통이다’라고 한것이 26%로 학교도서관의 장서가 교사들의 요구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중에 특히 부족을 느끼는 부분으로 ‘참고도서’가 20%, ‘전공도서’가 65% 지적함으로써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도서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표시한다.

본 연구를 계획하는 과정에 관련주제문헌들을 소급 조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장서평가사례는 상당히 많으나 중등학교 도서관의 장서평가사례는 외국에도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근거를 제공한 최근의 두 연구는 1966년에 「의학연구정보 유통체계 개발원」의 「오어」 「핑」 「파이어」 「울슨」 등이 공동으로 행한 의학도서관 및 의학정보관의 설립, 운영, 평가용 방법론적 도구의 개발연구¹²⁾와 이 연구에서 제시된 “청구문헌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측정법(소위 「(Document Delivery Test)」 부분을 도서관학 및 정보대학원 도서관 장서평

가용 표준서목 작성에 적용하고, 그렇게 작성된 표준서목으로써 두 표본도서관의 문헌제공시간을 측정한다 「카나다」국방연구소의 「페너」¹³⁾ 연구이다.

「페너」 연구에서 어떤 분야 실수요자의 기본요구를 포함하는 문헌을 선정하여 그 속에 나타난 인용문헌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인용빈도가 높은 문헌들을 가려서 표준서목을 만든다는 방법은 본 연구의 전반부 곧 학교도서관의 교사용장서를 평가하는 표준서목 작성에 거의 그대로 응용되었다.

3. 평가용 표준서목의 타당성

장서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서목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모든 나머지 평가노력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장서평가용 도구로서 마련된 표준서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관련이론의 고찰이 필요하다.

「드·솔라·프라이스」의 분석¹⁴⁾에 의하면 새 논문들 속에 인용되는 이전 논문들의 일반적 분포상황은 이런 논문 100편에 대하여 40편이 새 논문들 속에 한번도 인용되지 아니하며, 50편은 한번씩, 10편은 두번이상(전체평균 3.1회) 인용된다는 것이다. 두번이상 새 논문들 속에 인용되는 이 10편, 즉 10퍼센트의 문헌들이 해당분야에서 가장 학술적 가치있는 중요한 논문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번 인용되는 논문일수록 그만큼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¹⁵⁾ 새 문헌들 속

7) Rudolph Hirsch, “藏書의 評價” 圖書館의 評價—藏書·人事行事, W.S. Yenawine編, 渡邊正亥譯(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65), pp. 9—20.

8) Robert P. Coale, “Evaluation of a Research Library Collection: Latin American Colonial History at the New berry”, *Library Quarterly*, 36(July, 1965) p. 173.

9) Mary B. Cassata and Gene L. Dewey, “Evaluation of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Some Guideline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13 (Fall, 1969) pp. 450—57.

10) 이기택, “교사들이 학교도서관과 접근될 수 있는 방법” 부산교육, no. 142 (1966. 12), pp. 144—45.

11) 김기완, “교사에 대한 학교도서관의 봉사” 문교경북, no. 16—17 (1968. 11, 1969. 1), 139—43. 120—26.

12) Richard H. Orr and others, Development of Methodologic Tools for Planning and Managing Library Service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56 (July, 1968) pp. 235—67.

13) Rudolf Jacob Penner, “Measuring a Library’s Capabilit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3 (Summer, 1972) pp. 17—30.

14) Derek J. de Solla Price, “Network of Science Papers,” in *The Growth of Knowledge: Readings on Organization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ed. by Manfred Kochen(New York: Wiley, 1967), pp. 145—55.

15) Eugene Garfield and I.H. Sher, “New Factors in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Literature through Citation Indexing,” *American Documentation*, 14 (1963), 191.

에 집중적으로 인용되는 이 소수 중요문헌들을 해당분야의 '연구전선'이라 한다. 표준서목이 위의 '연구전선'에 해당하는 소수 중요문헌을 찾아 수록된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중요문헌들을 찾기 위하여 「드·솔라·프라이스」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국어국문학 저술들이나 학술잡지들 속에 비교적 많이 인용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표준서목에 포함시켰다. 단지 「드·솔라·프라이스」가 문헌인용 빈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가 새로이 출판된 논문들인데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교사들이 꼭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도서와 잡지들을 사용한 것이 다를 뿐이다. 국어과 교사들이 특수한 직업영역의 연구자 집단이므로 그들이 선택한 자료들 속에 많이 인용된 저술들을 모아 표준서목을 작성한 것은 인용하는 문헌과 인용된 문헌사이에 공통영역이 있어 교사들의 요구와 흥미에 부합된다는 의미에서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진다. 일반 학술참고도서는 인용하고 인용되는 종류의 문헌이 아니므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사들에게 보낸 협조서함에 대한 응답속에 표시된 요구빈도를 문헌이용빈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¹⁶⁾ 요구가 집중된 것을 모아 그대로 표준서목에 수록하였다.

Ⅲ. 평가용 표준서목의 작성

평가용 표준서목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임의로 선정된 서울시내의 현직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150명에게 부록 1과 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서함을 내어 그들이 꼭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1) 학술잡지, (2) 국어과 학습지도상 참고도서 및 전공분야 저서, (3) 늘 가까이 두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참고도서를 조사하였다. 협조요청서함에 대하여 모두 112명이 응답서를 보내와 회수비율은 74.6%였다.

응답서에 기입된 모든 자료들을 위의 세종류로 나누어 응답빈도순 서목(부록 2, 3, 4)을 작성하고 각각 응답빈도 5회선에서 切捨하여 그 위에 든 학술잡지 4종, 학습지도상 참고도서 및 전공분야자료 48종을 취하여 인용문헌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확정되고, 일반참고도서 18종은 그대로 표준서목에 포함시켰다. 위에서 선정된 학술잡지 4종과 전공분야도서 48종을 대상으로 하여 각 자료의 서지나 각주에 포함된 모든 원용문헌들을 조사하고, 그것들을 인용빈도순으로 배열한 다음(부록 5, 6), 인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학술잡지는 4종, 전공도서는 133종을 취하여 표준서목에 포함시켰다.

평가용 표준서목에 포함시킨 잡지 4종과 단행본 133종의 수록범위 결정은 미국학교사서협회의 "학교도서

관설치기준¹⁷⁾"에 의거한 것이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설비기준"이나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 시설기준"에도 교사용자료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않아 이 외국기준의 차용은 불가피하였다.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교사용자료로서 단행본 200~1,000종, 학술잡지 25~50종을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국어과 시간은 전 교과과정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므로 단행본은 이미 선정된 일반참고도서 18종과 합하여 위의 최대기준량 1,000종의 약 7분의 1에 해당되는 151종이 되도록 133권으로 하였고, 잡지는 최소기준량 25종의 약 7분의 1에 해당되는 4종이 되도록 하였다. 잡지의 경우 최소기준을 사용한 것은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상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학술잡지 구독률이 낮다고 보아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 믿기때문이다. 또 다분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나 잡지 4종, 단행본 133종으로 함으로써 양자를 다같이 인용빈도 3회 에다 「컷라인」을 그고(부록 5, 6) 동일인용빈도의 기준으로 표준서목에 포함시킬 자료를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서목에 포함된 단행본 151종은 1901년부터 197년까지 간행된 국어국문학분야 학술연구저서 및 참고도서 1339종¹⁸⁾의 약 11퍼센트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교사용자료 155종(학술잡지 4, 학습지도상 참고도서 및 전공분야저서 133, 일반참고도서 18)은 장서점검시 편리하도록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표준서목을 완성하였다.(부록 7, 8, 9)

Ⅳ. 표본도서관 장서의 평가

완성된 표준서목을 가지고 서울시내의 5개 표본도서관의 장서목록을 비교 점검하고 일치율을 조사하였다. 표본도서관을 선정할 때 고등학교 중에서 설립자(공립과 사립), 학교위치(중심부와 변두리), 설립시기(전통있는 학교와 신설학교), 학생성별 등을 고루 대표할

16) B.C. Brookes, "Bradford's Law and the Bibliography of Science," *Nature*, 224 (December 6, 1969), pp. 953-56.

17)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0), pp. 24-25.

18) 1901-1909 14종[大韓民國學術院編, 學術總覽(서울: 학술원, 1966), v. 1, 國語國文學編, pp. 135-37]

1910-1970 1,241종[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韓國論 著解題(서울: 민족문화연구원, 1974), v. 언어문학편]

1971-1972 41종[大韓民國學術院編, 學術總覽(서울: 학술원, 1974), · 8, 국어국문학 보유편(1)], pp. 17-19, 94-97.]

계 1,339종

〈표 1〉 표본 도서관의 성격

표본 도서관	구분	설립자	학위 교지	설립 시기	학생
A	공립	중심부	오래된 학교	남자	
B	사립	변두리	신설된 학교	남자	
C	공립	중심부	오래된 학교	여자	
D	사립	변두리	신설된 학교	여자	
E	사립	변두리	신설된 학교	공학	

수있도록 유의하였고(표1), 장서목록 점검은 3개도서관은 해당도서관 사서들에게 부탁하여, 2개도서관은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1. 학술잡지

학술잡지 점검결과는 가장 비관적인 것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서목에 포함시킬 학술잡지 수를 결정할 때 최저기준량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는 표 2와 같이 5개 표본도서관중 2개 도서관만이 각각 1종(25%)씩 표준서목에 포함된 잡지를 구독하였으며 3개도서관은 1종의 구독도 없었다.

〈표 2〉 학술잡지 구독상황

(표준서목에 포함된 학술잡지 종수 4종)

도서관	구독잡지수	구독잡지수	표준서목 (4종)에 대한 비율
A		1	25.00%
B		1	25.00
C		0	0
D		0	0
E		0	0
계		2	10.00

2. 학습지도상 참고도서 및 전공분야 저서

표준서목에 포함된 학습지도에 관련된 도서와 국어과 교사들의 전공지식을 수정 또는 확대시켜 줄 것이라 믿어지는 자료의 점검결과는 일반적으로 교사용 기본자료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 중에서도 도서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B도서관이 근 70%를 소장한데 대하여 C도서관은 약 12%를 소장한데 불

〈표 3〉 학습지도상 참고도서 및 전공분야저서 소장상황

(표준서목에 포함된 이 부분 자료종수 : 133종)

도서관	소장자료종수	소장자료종수	표준서목 (133종)에 대한 비율
A		32	24.06%
B		92	69.17
C		16	12.03
D		28	21.05
E		67	50.37
계		235	35.33

과하다. 또한 장서점검 결과 일치율은 평균 35.33%라는 낮은 수준이라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일반참고도서

표준서목에 포함된 18종의 일반참고도서 소장상황은 좋은 편이다. 5개 표본도서관이 다 70%이상의 일치율을 보이며 특히 E도서관은 100%, A도서관은 약 95%다. 전체평균은 85%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참고도서가 비교적 비싼 종류의 도서이기는 하나 여러 이용자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자료가치 수명이 길다는 점에서 학교경영자들로부터 구입승인을 얻기 쉽고, 표준서목에 포함된 종수가 적다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 일반참고도서 소장상황

(표준서목에 포함된 이부분 자료종수 : 18종)

도서관	소장도서종수	표준서목(18종)에 대한 비율
A	17	94.44%
B	15	83.33
C	13	72.22
D	14	77.77
E	18	100
계	77	85.55

위에서 세 자료부문별로 표준서목에 의한 5개 표본도서관의 국어과 교사용 자료 소장상황을 분석하였다. 표 5에는 세부분 「데이터」를 종합하여 소장상황의 전체적 인상이 표시되었다.

〈표 5〉 5개 표본도서관의 국어과 교사용자료 소장상황

(표준서목에 포함된 자료종수 : 155종)

도서관	소장자료수	표준서목 (155종)에 대한 비율
A	50	32.25%
B	108	69.67
C	29	18.70
D	42	27.09
E	85	54.83
계	314	40.51

이 표에서도 (2)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저수준과 도서관간의 심한 격차를 말할 수 있으나 평균 일치율은 40.51%로 약간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평가에 있어서든지 기준의 40.51%라는것은 문제가 아니될 수 없는 수준이다.

V. 결 론

1. 결 론

고등학교 국어과교사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평가용

표준서목을 작성하고, 그것으로써 서울시내의 5개 표
본도서관 장서중 국어과교사용 자료용 자료를 점검 분
석한 후 얻어진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학교도서관의 국어과교사용 학술잡지 구독상황
은 매우 나쁘다 (전체평균 10%)

(2) 학교도서관의 국어과교사용 학습지도 관계문헌
및 전공분야저서 소장상황은 전반적으로 저수준이며
(기준량에 대한 전체평균 35.33%), 도서관간에 심한
격차가 있다. (최고 69.17%, 최저 12.03%)

(3)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국어과 교사용 일반참고도
서들은 비교적 충실하며(기준량에 대한 전체평균 85.
55%), 도서관간의 격차도 심하지 않다. (5개 도서관이
모두 72.22% 이상)

2. 연구결과의 응용 및 이후 연구자에 대한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써 교사들을 위한 학교도서관 장서
의 일반적 취약영역이 밝혀졌으므로 그 보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각 학교도서관의 장서구성 계획과 수입
자료의 부문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본 연구를 위하여 마련된 장서평가용 표준서목은 어느
고등학교도서관에서나 국어과교사용 자료의 자체평가
기준으로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찾으려는 연구자들을
위하여 본 연구과정에서 부딪혔던 다음 문제들을 제시
한다.

(1) 국어과가 아닌 다른 과목 담당교사들을 위한 학
교도서관 장서의 평가

(2) 평가용 표준서목 작성시 인용문헌 조사자료로서
사범대학 교재들을 이용하는 방법

<부록 7> 자모순 평가용 표준서목 I (학술잡지류)

일련번호	서 명	부록 5의 순위
1	國 語 國 文 學	1
2	새 국 어 교 육	4
3	語 文 學	3
4	한 글	2

<부록 8> 자모순 평가용 표준서목 II

(학습지도상 참고도서 및 전공분야 자료)

일련번호	저 자 명	서 명	부록 6의 순위
1	고 려 대 학 교 민 족 문 화 연 구 소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	18
2	고 경 옥 (高晶玉)	國文學要綱	95
3	구 인 환 (丘仁煥) 구 창 환 (丘昌煥)	文學의 原理	43
4	김 기 동 (金起東)	國文學概說	43
5	김 기 등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18
6	김 기 립 (金起林)	詩論	43

7	김 동 리 (金東里)	文學概論	43
8	김 동 리 (金東里)	小說作法	95
9	김 동 옥 (金東旭)	國文學概說	18
10	김 동 옥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18
11	김 등 인 (金東仁)	春園研究	95
12	김 민 수 (金敏洙)	國語文法論	68
13	김 민 수 (金敏洙)	新國語學	43
14	김 민 수 (金敏洙)	註解訓民正音	95
15	김 사 엽 (金思燁)	改稿國文學史	12
16	김 사 엽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68
17	김 사 엽 (金思燁)	朝鮮文學史	68
18	김 석 득 (金錫得)	국어구조론	95
19	김 석 호 (金碩浩)	創作原論	95
20	김 성 배 (金聖培)	新國語教育論	68
21	김성배(金聖培)外 3人	註解歌辭文學全集	95
22	김 완 진 (金完鎭)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95
23	김 우 중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18
24	김 중 우 (金鍾雨)	鄉歌文學研究	95
25	김 진 섭 (金晉燮)	교양의 문학	68
26	김 춘 수 (金春洙)	詩論	43
27	김 춘 수 (金春洙)	韓國現代詩形態論	68
28	김 태 준 (金台俊)	朝鮮小說史	43
29	김 현 승 (金顯承)	韓國現代詩解說	18
30	김 형 규 (金亨奎)	古歌註析	43
31	김 형 규 (金亨奎)	國文學概論	95
32	남 광 우 (南廣祐)	現代國語國字의 諸問題	95
33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大韓民國國會圖書館)	國朝榜目	68
34	대한민국 문교부 (大韓民國國文敎部)	교육과정	95
35	모슬리, 니콜라스 저 이 상 선 역	교사지침	68
36	문 덕 수 (文德守)	新文章講話	12
37	문 덕 수 (文德守)	現代文章作法	18
38	문 선 규 (文璇奎)	韓國漢文學史	43
39	박 두 진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95
40	박 목 월 (朴木月)	文章의 技術	43
41	박 성 의 (朴晟義)	松江·盧溪·孤山의 詩歌文學	43
42	박 성 의 (朴晟義)	韓國古代小說史	43
43	박 성 의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	68
44	박 영 희 (朴英熙)	文學의 理論과 實際	95
45	박 영 희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	95
46	박 창 해 (朴昌海)	국어 구조론 연구- 음운론 및 음운배합론	68
47	방 며 겹 저 · 김동옥 역	比較文學	43
48	백 두 성 (白斗星)	現代詩研究	35
49	백 철 (白 鐵)	文學概論	1
50	백 철 (白 鐵)	二十世紀의 文藝	35
51	백 철 (白 鐵)	朝鮮新文學思潮史	18
52	백 철 (白 鐵)	韓國文學의 理論	95
53	백 철 (白 鐵)	韓國新文學史에 끼친 近代自然主義의 影響	12
54	서라벌예술대학출판부 (서라벌藝術大學出版部)	文藝學概論	8
55	서울대 학교어학연구소 (서울大學校語學研究所)	語學研究	35
56	서 정 주 (徐廷柱)	詩文學概論	18
57	서정주(徐廷柱), 박목월 (朴木月), 조지훈(趙芝	詩創作法	68

58	서정주 (徐廷柱)	韓國의 現代詩	68	109	조윤제 (趙潤濟)	國文學概說	18
59	송옥 (宋 穉)	文學評傳	68	110	조윤제 (趙潤濟)	國文學史	7
60	송옥 (宋 穉)	詩學評傳	43	111	조윤제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12
61	신몽옥 (申東旭)	韓國現代文學論	95	112	조윤제 (趙潤濟)	韓國詩歌의 研究	68
62	신시 60년 기념사업회 (新詩60年紀念事業會)	韓國詩選	95	113	조지훈 (趙芝薰)	詩의 原理	18
63	심재완 (沈載完)	校本歷代詩調全書	95	114	조지훈 (趙芝薰)	國語意味論	95
64	심재완 (沈載完)	時調의 文獻의 研究	43	115	최광열 (崔光烈)	現代韓國詩批判	68
65	양염규 (梁廉奎)	國文學概說	35	116	최승범 (崔承範)	隨筆文學	35
66	양주동 (梁柱東)	古歌研究	8	117	최재서 (崔載瑞)	文學과 知性	68
67	양주동 (梁柱東)	麗論箋注	43	118	최재서 (崔載瑞)	文學原論	6
68	여석기 (呂石基)	戲曲論	35	119	최재서 (崔載瑞)	崔載瑞評論集	68
69	우리어문학회 (우리語文學會)	國文學概論	18	120	최재학 (崔在學)	實地應用作文法	68
70	우리어문학회 (")	國文學概說	43	121	최배호 (崔台鎬)	隨筆作法	95
71	우리어문학회 (")	國文學史	43	122	최현 (崔 鉉)	現代詩十講	95
72	펠릭, 르네제 김병철 역	文學의 理論	43	123	최현배 (崔鉉培)	나라사랑의 길	95
73	유창균 (兪昌均)	東國正韻研究	43	124	최현배 (崔鉉培)	우리말본	10
74	윤원호 (尹元浩)	韓國隨筆文學論	95	125	티보테 A.저 유억진역	小說의 美學	43
75	이가원 (李家源) 주석	春香傳	95	126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韓國國語教育研究會)	高等國文法	95
76	이가원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35	127	허웅 (許 雄)	國語音韻學	68
77	이강로 (李江魯)	國語教育의 바른길	95	128	허웅 (許 雄)	言語學概論	5
78	이기문 (李基文)	정실고전국어	68	129	허웅 (許 雄)	註解龍飛御天歌	11
79	이기백 (李基白)	韓國史新論	95	130	허웅 (許 雄)	中世國語研究	68
80	이능우 (李能雨)	入門을 위한 國文學概論	18	131	허웅 (許 雄)	標準文法	18
81	이명선 (李明善)	朝鮮文學史	95	132	현대교육총서 출판부 (現代教育叢書出版部)	現代教育叢書	68
82	이병기 (李秉岐)	國文學概論	12	133	현대문학사편 (現代文學社)	文學概論	18
83	이병기 (李秉岐)	國文學全史	1				
84	이상보 (李相寶)	改稿朴廬溪研究	95				
85	이상섭 (李商燮)	文學研究의 方法	68				
86	이상섭 (李商燮)	文學研究의 理解	35				
87	이울환 (李乙煥)	意味論	95				
88	이인모 (李仁模)	文體論	95				
89	이재선 (李在鎭)	韓國開化期小說研究	95				
90	이재선 (李在鎭)	文學의 理論	18				
91	이태극 (李泰極)	時調概論	12				
92	이태준 (李泰俊)	文章講話	43				
93	이혜구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68				
94	이희복 (李熙福)	國語教育의 앞길	95				
95	이희승 (李熙昇)	國語學概說	95				
96	일연 (一 然)	三國遺事	43				
97	임화 (林 和)	新文學史	68				
98	장덕순 (張德順)	國文學通論	4				
99	장덕순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95				
100	장만영 (張萬榮)	現代詩의 理解와 鑑賞	68				
101	전규태 (全圭泰)	韓國古典文學大全集	18				
102	정병욱 (鄭炳昱)	國文學啟蒙	43				
103	정병욱 (鄭炳昱)	표준 고전	95				
104	정주동 (鄭鉉東)	古代小說論	68				
105	정한모 (鄭漢模)	現代作家研究	43				
106	조선어문학회 (朝鮮語文學會)	朝鮮歌謠集成	95				
107	조연현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3				
108	조연현 (趙演鉉)	韓國現代作家論	95				

<부록 9> 자모순평가용표준서목 Ⅲ

(일반참고도서류)

일련번호	저자명	서명	부록 4의 순위
1	강수원 (姜壽元) 박병채 (朴炳采)	韓國人名辭典	4
2	고사성어사전간행회편 (故事成語辭典刊行會)	故事成語辭典	6
3	남광우 (南廣祐)	古語辭典	2
4	남광우 (南廣祐)	古典文學事典	15
5	배양서 (裵亮瑞)	한국의태어사전	12
6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國語國文學事典	6
7	이기문 (李基文)	俗談辭典	11
8	이어령 (李御寧)	世界文章大百科事典	12
9	이희승 (李熙昇)	국어대사전	3
10	장삼식 (張三植)	大漢韓辭典	9
11	장태진 (張泰鎭)	韓國隱語辭典	15
12	정병욱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6
13	정김사영 (鄭 金士永)	國語學習辭典	15
14	최근학 (崔根學)	世界格言辭典	15
15	학원사편집국편 (學園社編輯局)	文藝大辭典	1
16	한글학회	큰사전	12
17	현대문학사편 (現代文學社)	文學小辭典	5
18	홍자출판사편 (弘字出版社)	最新弘字玉篇	10